

한국낙농육우산업의 개괄적 검토



김 정 주
건대 농경과 교수

1. 한국 낙농·육우산업의 현황

한국 의 축산업, 특히 낙농·육우산업은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단기간 내에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처럼 낙농·육우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 중에서도 국민소득의 증대와 함께 우유나 육류의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유나 육류는 다른

농축산물에 비하여 소득 탄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율에 대한 우유 및 육류의 수요 증가율이 높아지고, 쌀이나 보리 같은 농산물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그 수요(소비)는 감소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낙농이나 비육우 산업을 성장산업 또는 우유나 축산물을 성장농산물이라고 부른다. 이번호에는 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다음호 부터서는 몇회에

결쳐 축산경영의 전반에 관한 것을 쉽게 풀이하여 연재하기로 하겠다.

가. 낙농산업

낙농업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장려된 것은 1960년대 부터이니까 30년의 역사도 못되지만 그동안의 발전은 눈부시다. 사실 자연적 여건으로 보아서 겨울의 혹한과 여름의 혹서로 낙농하기에는 그리 좋지 못한 여건임에도 이처럼 낙농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축산인의 저력의 덕이라고 생각된다. 불행이도 최근 낙농업이 생산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저력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일에 유가공업체는 물론 생산농가도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젖소 사육현황을 살펴보면 1989년 9월말 현재 3만7천 농가가 51만4천두를 사육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1979년의 호당 9두에 비하면 상당히 사육규모가 증가한 것이나 9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와 50두이상의 대규모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10-14두 사육규모는 10년전에도 16%이던 것이 1989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우리나라의 적정사육규모가 10-14두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 방법을 적자생존기법 이라고 한다).

젖소의 지역별 사육분포를 보면, 경기 지역의 전체 사육두수에 대한 비율이 1989년 9월말 현재 49.2%, 충남지역의 비율은 12.9%로 대부분의 젖소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충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기·충남지역 집중현상은 과거에 비하여 다소 완화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의 팽창으로 서울근교, 경기지역의 땅값이 상승하여 토지의 기회비용이 높아짐으로써 낙농지대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잠식되었을 것이고, 교통수단, 도로망, 냉장시설의 발달로 구태어 땅값이 비싼 경기지

낙농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우유 판매대전과 부산물 형태로 생산되는 젖소 숫송아지 가격과 노페우 가격 등이다. 그런데 우유 판매대전을 젖소의 산유량에 크게 의존되지만 젖소의 산유량은 어지간한 노력으로 향상시키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해 있으므로 자연히 우리의 관심은 우유 판매 가격에 쏠리게 된다.

역에 목장을 입지시킬 필요가 적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종전의 서울을 중심으로 했던 낙농지대의 중심원 변경이 점차 커질 뿐 아니라 국도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낙농지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낙농농가수가 매년 늘고 사육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유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일 것인데, 축협 중앙회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보고에 의하면 젖소 두당 소득율은 37.9%로 비육우(36.2%), 번식우(2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낙농업의 발전 요인을 수익성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낙농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우유판매대전과 부산물 형태로 생산되는 젖소 숫송아지 가격과 노페우 가격등이다. 그런데 우유판매대전을 젖소의 산유량에 크게 의존 되지만 젖소의 산유량은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향상시키지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해 있으므로 자연히 우리의 관심은 우유 판매가격에 쏠리게 된다.

우유농가 판매가격은 일반 농축산물처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농가가 받아들이는 형태가 아니고 낙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는 고시가격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낙농가의 증산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납유한 우유의 지방함량에 따라 일정한 기준(3.4%)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면 일정한 금액을 기준가격에 더하거나 덜하도록 하는 소위 성분가(成分價)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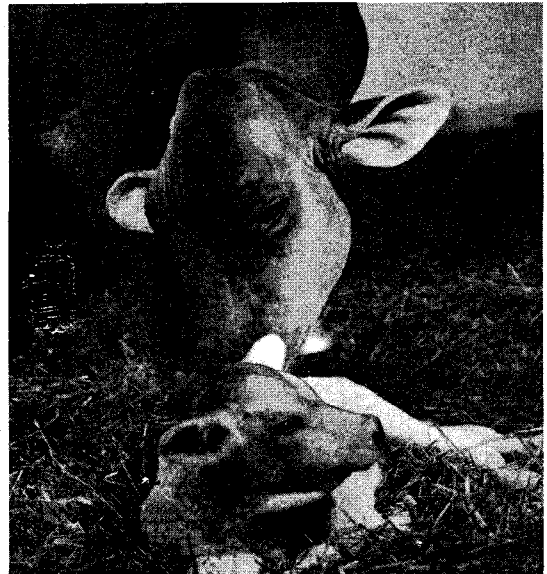
어떠한 가격이든 높으면 높을수록 당장은 좋은 것이므로 이처럼 통제된 통제가격은 얼핏 보기에 생산농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만 요즘처럼 우유생산이 팽임되어도 가격이 하락될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생산자를 위한 제도로 보아도 될 것이다.

문제는 우유의 성분중에서 지방함량만을 기준한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지방이외의 성분을 측정하는 기술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방이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지방함량을 기준하여도 별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지방과 단백질 함량을 디지털 검출기로 검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만을 두려워 하는 나머지 지방분을 더이상의 고급 영양소로 취급해 주지 않으므로 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낙농선진국에서는 지방함량 뿐 아니라 단백질 및 세균수 까지를 고려하여 우유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 되었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성분가 제도를 도입한 이래 낙농가로 하여금 조사료를 더 많이 급여하도록 한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진 필자의 연구 보고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우유소비량은 1970년대부터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88년말 국민 1인당 우유소비량은 38.5kg에 이르렀다. 이는 1980년 11kg에 비하면 4배에 달하는 증가인데, 이러한 증가는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낙농선진국 수준까지는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우리의 식생활 관습이 서구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데서 연유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앞으로 유제품 및 우유소비는 계속 증가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우유 및 유제품의 생산 증대가능성은 어



떠한가?

소비증대처럼 그렇게 낙관적일 수는 없다. 최근의 우유과잉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낙농업은 앞으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로 노동력의 부족으로 생산규모 확대가 어려울 뿐 아니라 후계자 육성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낙농업은 작업의 특징이 새벽에 일어나 일해야 하고 년중무휴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낙농업이 어지간히 수익성이 높지 않고서는 유인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목장입지가 도시로부터 이격되다 보면 낙농업자의 문화혜택이나 자녀교육문제로 낙농업 지원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녀교육에 유별나게 극성스러운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셋째는 수입개방압력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던 나라로부터 제외된 이후(이를 BOP졸업이라고 흔히 말한다). 8년 이내 즉 1997년까지는 모든 농축산물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유제품도 예외가 될 수

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낙농선진국의 값싼 양질의 유제품이 무분별하게 밀어 닥칠때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낙농업의 설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이처럼 불을 보듯 뻔할 결과를 놓고 서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더우기 요즘처럼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빈약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오직 살길은 농민 스스로 생존권 수호의 차원에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협회나 협동조합 등 농민 대표기관을 통하여 단결된 힘을 보이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려면 우선 낙농구조를 재편성하여 일정한 지역에 낙농지대를 형성하고 환경오염, 문화해택, 자녀교육 공동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수입 유제품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비용절감이 우선 되어야 하므로 낙농 생산 뿐 아니라 사료공급, 원유가공, 유제품생산, 유제품 판매까지를 연결한 통합(integration)체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때 농민은 젖소 사육을 맡고 협동조합이나 협회가 사료, 가공, 판매를 담당하는 형태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통합은 양계나 양돈에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비용을 30-40% 절감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판매촉진, 대정부 로비활동, 조사연구, 각종 정보전달 등의 공동이익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는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하되 이를 위하여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조금제도(Chck-off)를 우리도 도입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생산자가 생산물을 출하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적립해 두었다가 위와 같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생산자 기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각종 기금의 용도가 유명무실하게 쓰여 버린 전례를 답습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또 하나의 대안은 아무리 유제품이 몰물듯이 들어와도 그 신선도를 당해낼 수 없는 새로운 유제품의 개발이 시급

하다. 예를들면 아침에 착유한 우유가 당일 아침에 배달되는 우유가 그것이다. 실제로 독일에는 이런 우유가 상품화 되어 소비자의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몸에 좋다면 값을 불문하는 분위기이고 보면 결코 꿈같은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나. 육우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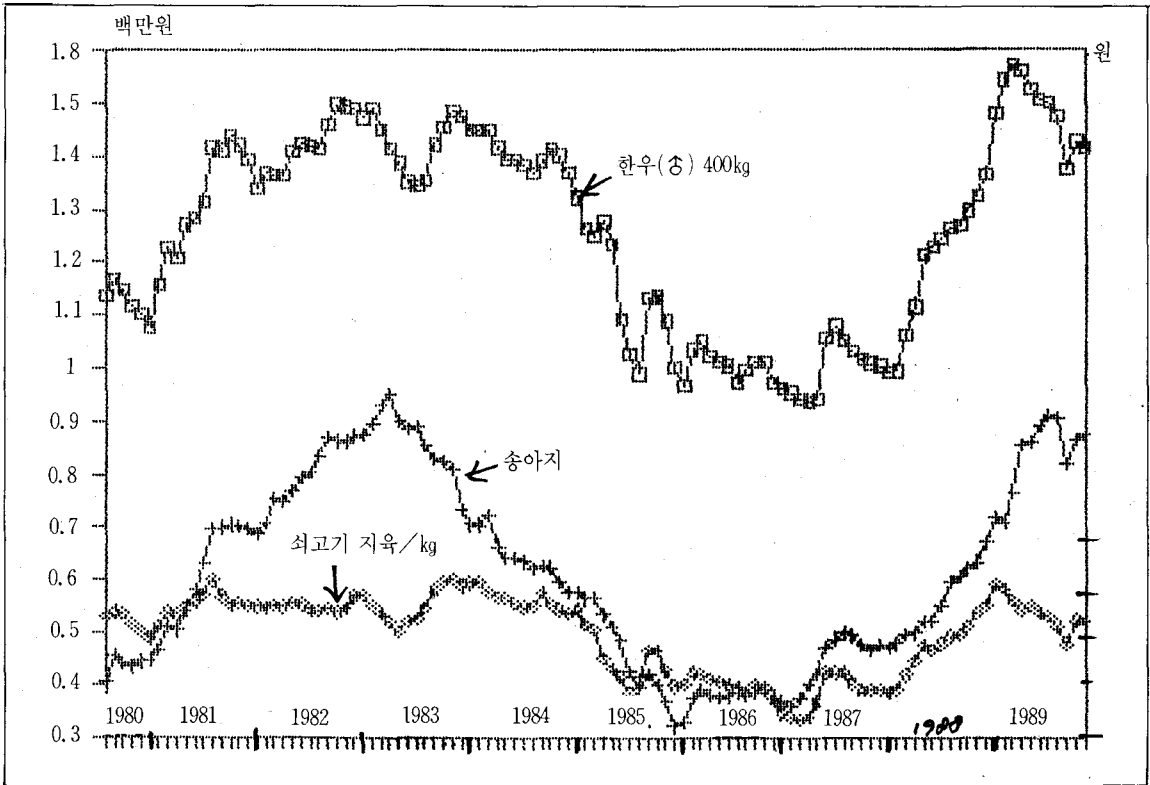
육우산업은 1970년대 까지만 해도 한우와 분리되어 수입된 육용종 고기소를 사육한 분야를 육우산업으로 보았으나 한우가 역용에서 밀려나서 이제 육용으로 정착된 이후 한우육성 및 비육사업을 육우 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 육용종 도입소를 포함한 한우의 사육두수는 1989년 9월말 현재 전국 66만 농가가 162만두를 사육하여 호당 2.4두의 사육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육규모는 1979년 6월의 117만농가에서 177만두를 사육하여 호당 1.5두 사육규모에 비하여 크게 확대되는 못하였다. 이는 4마리 이하를 사육한 영세농가가 지금도 90%를 넘고 있어 미작농가가 미작농부산물을 이용한 형태가 아직도 지배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우의 사육규모는 꾸준한 증가를 이룩하여 1985년에는 255만두에 달한 적도 있었으나 이러한 공급과잉으로 뼈아픈 소파동을 겪어 정부의 한우사육 장려정책이 여지없이 불신당한 사례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과잉은 필연적으로 가격폭락을 겪었는 바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 중반부터 1987년말까지 길고도 깊은 침체의 늪을 헤매다가 1988년 초반부터 중반까지 반짝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의 수입 쇠고기의 대량 방출로 다시 하강국면에 접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우 가격이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일은 한우가격이나 송아지 가격은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봉우리를 이루는 기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지육 가격은 그다지 큰 진폭이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지가격과 연결되지 못한 쇠고기 가격정책으로 생산자와 소비

〈그림-1〉 한우, 송아지, 쇠고기 가격 변동추세. (1980.7~1989.9).

자료 : 축협조사자료 각년도, 축협중앙회.



주 : 모든 가격은 농가구입 가격 총지수로 할인한 가격임.

자는 피해를 받아도 중간 상인만 배불렀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고 있다.

한우가격과 송아지 가격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한우의 현재가격과 송아지의 1년전 가격수준은 바로 한우 사육농가의 수익을 대변해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우의 현재가격과 1년전 송아지 가격차가 적었던 때 즉, 수익성이 매우 악화되었던 때는 1983년에서 1987년까지 이었고 1988년에 회복된듯하다가 1989년초에 다시 하강세를 보이고 있어 결코 한우사육으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쇠고기의 소비는 우유에 비하면 미흡하나, 증가추세에 있음은 분명하다. 즉, 1978년에 국민 1인당 쇠고기 소비실적은 3.1kg이던 것이 1988년에는 3.4kg으로 미미한 증가에 그쳤다. 쇠고기 소비는 국민

의 소득수준은 물론 쇠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등의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관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으로 쇠고기를 우등육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쉽사리 소비가 감소될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쇠고기의 상대가격이 계속 비싸고 돼지와 육계산업이 각종 통합활동으로 가격이 인하된다면, 그렇게 항상 안정적일 수만은 없다. 설상가상으로 값싼 수입육에 맞들여진 소비자의 기호가 언제 한우고기를 배신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한우 쇠고기 맛이 소비자의 기호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미리 세워 두어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한우 쇠고기가 지금의 토종닭 요리처럼 간주될 대도 머지 않은 것 같다. (다음호에 계속)